

# 중국발 입국 규제 강화에 美 변이까지... 항공업계 '침울'

〈코로나19 XBB.1.5〉

중국발 입국자 10명 중 2명 확진  
국제선 노선 정상화 기대감 '찬물'  
증편 제동에 춘절 특수 물 건너가  
미국 변이 확산에 팬데믹 우려도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공항 관계자들이 중국발 입국자를 분류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중국에서 항공편이나 배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는 등 고강도 방역 대책을 시작했다. /뉴시스

‘엔데믹’ 분위기를 기대하며 새해를 맞이한 항공업계에 다시금 코로나19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중국 정부의 방역 완화로 중국 항공 노선의 정상화가 이뤄질 거라는 기대는 ‘이른 기대’라는 분위기가 항공업계 전반을 뒤덮고 있다. 게다가 미국에서 빠르게 확산 중인 변이 바이러스 소식에 항공업계 정상화 시계가 더 더뎠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 309명 중 61명(19.7%)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체 중국발 입국자 수는 승무원들을 포함해 1052명이었다.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따라 지난해 국제선 항공여객 수가 10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국제선 여객은 405만명으로 전월 대비 31.5% 증가한 셈이다. 그럼에도 항공사로서는 중국 증편을 계획대로 실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 코로나19 이전

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모두에 대해 코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화하고 중국발 항공기 도착은 모두 인천으로 일원화했다. 결국 지방에서 중국을 오가는 노선들은 중국 노선에 한해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별다른 바 없는 상황에 처했다.

중국에서 국내에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단, 장례식 참석 등의 인도적

목적과 공무 국외출장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및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 40일 내인 경우는 예외로 둔다.

여기에 우리 정부가 중국 단기비자 발급도 제한하자, 국내 항공사들은 1월 중국 노선을 증편하려던 계획을 잠정 중단하고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운항 편수만 유지하는 모습이다. 단기 비자 발급 제한 기간은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어 중국 노선 정상화는 묘연해졌다.

이는 비단 한국만의 상황은 아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프랑스, 모로코, 스페인, 인도, 일본, 이탈리아, 말레

이시아, 방글라데시, 대만 등 최소 14개국이 중국발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방역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중국 노선 증편이 늦어지는 것은 아쉽지만 방역 차원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는 일”이라며 “팬데믹 초창기와 같이 방역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빗장을 걸어 잠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현재는 중국발 한국행 항공편이 인천 공항으로만 들어오도록 돼 있어 기존 65회정도 운행되던 중국~한국 왕복 노선은 현재 62회로 줄어든 상태다. 또 다

른 항공사 관계자는 “준비된 중국행 기재들은 수요가 많은 대체편으로 운항을 모색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며 “지금 운항하는 중국발 비행기도 여석이 있는 상황 속에서, 굳이 방역을 다시 강화하는 시기에 무리하게 증편을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의 경우는 1월 주 15회로 늘리려던 중국 노선 운항 횟수를 지난해 12월 운행했던 주 9회로 원상복귀 시켰고,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지방발 중국 노선 운항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추가로 취항하려던 노선 계획도 잠시 보류 중이다. 결국 중국 명절인 ‘춘절’로 발생하는 ‘중국 특수’는 올해도 누릴 수 없을 전망이다. 한 LCC 관계자는 “LC C들의 후자 전환 속도는 중국발 노선 정상화와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코로나 19 추이를 유심히 지켜보고 정부 방역에 따라 안전하게 증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에서 빠르게 확산 중인 코로나19 XBB.1.5 변이가 국내에도 이미 들어와 있는 것으로 확인돼 항공업계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XBB.1.5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변이 중 가장 전염성과 면역 회피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지다시 코로나19가 팬데믹화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롯데바이오로직스, 美 생산공장 인수 완료

# 위탁생산 착수... 2030년 매출 1.5조 목표

美 뉴욕 시러큐스 BMS 생산공장  
항체의약품 원액 3.5만리터 생산  
시장 진입 1년 이내로 단축 의미

롯데그룹이 신성장엔진인 바이오산업의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후발 주자인 만큼 대규모 투자로 시장 진입 기간을 대폭 줄이는 전략을 택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3일 글로벌 제약사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퀵(BMS)의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 인수를 마무리하고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6월 출범한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지난 5월 미국 뉴욕주 시러큐스시에 위치한 BMS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을 1억 6000만달러(약 208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지난 달 31일 시러큐스 공장에 대한 모든 인

수 절차를 완료하고 1일부터 롯데바이오로직스 시러큐스 공장으로 가동을 시작했다. 총 3만 5000리터의 항체 의약품 원액(DS) 생산이 가능한 규모다.

롯데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통상 신규 공장을 증설해 CDMO 사업에 진출하는 경우 상업 생산까지 최소 5년 이상이 필요한데 반해,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시러큐스 공장 인수로 시장 진입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했다”며 “크로스보더(국경 간 거래) 자산 인수는 평균 1년 이상이 걸리지만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신규 설립한 소규모의 조직만으로 8개월만에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생산 시설뿐 아니라 기존 BMS 임직원 99.2%까지 승계했다. 평균 경력 15년 이상의 핵심인력을 포함하고 있어 사업 초기의 시행착오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롯데바이오로직스 미국 법인장 마이클 하우스슬레이던은 “시러큐스 임직원들은 롯데의 시러큐스 공장 인수를 환영하며, 롯데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고무되어 있다”며 “글로벌 톱 10 CDMO 기업 목표 달성을 위해 임직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매출은 올해부터 바로 발생한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BMS와 2억 2000만 달러(2830억원)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기간은 3년이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기존 BMS에서 생산 중이던 제품을 지속 생산하고 이에 더해 추가 위탁생산을 1월부터 시작한다.

회사측 관계자는 “계약 기간은 3년이지만 BMS의 수주에 따라 생산하기 때문에 올해 매출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인수한 BMS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공장 전경. /이세경 기자 seilee@

예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추가적인 생산 설비 증설 및 완제 의약품(DP), 항체 약물 접합체(ADC) 등 새로운 분야로의 확장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약 7000만 달러 투자 및 70명 규모의 신규 인력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

추가 수주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롯데바이오로직스 이원직 대표이사는 오는 9~1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2023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에 참가해 직접 발표를 진행하며 CDMO 사업 비전과 중장기 사업 전략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시러큐스 공장의 성공적인 인수를 토대로 환자들에게 혁신적인 의약품을 제공하여 2030년까지 매출 1조 5000억원, 영업이익률 30%, 기업 가치 20조 원 달성할 수 있는 글로벌 CDMO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1분기 임원·본부장 워크숍에서 한용구 은행장이 CEO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신한은행

## 한용구 신한은행장 “고객 목소리 반영, 다시 한 번 점검”

1분기 임원·본부장 워크숍  
은행-직원 연결 구심점 주문

“오프라인 채널 및 디지털 혁신 과정에서 ‘고객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돼 있는지 점검하고 고객의 경험을 새롭게 디자인해 나가자.”

한용구 신한은행장은 3일 서울 중구 소재 본점에서 ‘고객중심 가치 발전(V

alue-up!) 기본에 충실한 은행! 신뢰로 도약하는 미래!’를 주제로 ‘1분기 임원·본부장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 은행장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해온 ‘오프라인 채널 및 디지털 혁신’ 과정에 고객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돼 왔는지 다시한번 점검하고 고객의 경험을 새로 디자인해 나가

자”며 “실제 고객들의 행동양식을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아 각 부문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살펴보자”고 말했다.

한 은행장은 신한은행의 또 다른 유저 ‘직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은행 정책 전반에 이를 반영해 직원과

고객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혁신을 이뤄 나가야 한다”며 “동시에 직원 전문성 강화에 힘써 직원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정성을 다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한 은행장은 임원에게 인터페이스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임원·본부장들께서 인터페이스가 돼 고객과 은행, 직원과 은행을 연결하는 구심점이 돼달라”며 “서로다른 두 시스템을 이어주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

/나유리 기자 yu115@